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利鍵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鮮銀券膨脹 三億圓突破

一

鮮銀券의 二十二日 發行高는 三億圓을 突破하야 鮮銀創設以來의 最高記錄을 보이엇다。이것을 昨年當日 發行高에 比하면 五千餘萬圓의 增發이오 過去의 最高記錄인 昨年十二月二十七日의 二億九千萬圓에 比하야 九百六十萬圓의 增發이고 二十五日 發行高는 三億五百萬圓으로 膨脹되어 極히 注目된다。鮮銀券은 事變以來 北支의 軍票需要로 今春初부터 相當한 計數의 增大를 보이엇섯지만 이것은 今夏以來 回收에 轉하고잇는만큼 十二月中旬以來의 急激한 增發은 純全한 朝鮮內의 所要資金으로서 發行된것이어서 今月一日以來 朝鮮內各支店의 所要資金向은 近四千萬圓이엇다한다。

二

그러면 이러한 鮮銀券의 三億圓突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재로 最近의 地方經濟膨脹을 들수잇스니 朝鮮은 周知하는바와가티 產業의 大宗이 依然農業이오 經濟의 主體가 米에잇는만큼 十二年產米가 未曾有의 大豐作인 二千六百七十九萬餘石 그 價額은 七億七千餘萬圓으로서 이것을 米作農家二百三十萬戶 一戶 平均 百圓의 增收에 基因한 農村景氣를 이질수 업다。即 無前大豐에다가 米價가 相當한 高價를 年中維持한 恩澤이라 아니할수 업다。農村經濟를 反映하는 金組의 狀況을 보건대 十月末의 金融組合의 預金及 定期積立은 總計一億八千八百九十萬圓이란 巨額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三千餘萬圓의 激增이며 例年金組의 回收가 不良하든것이 普通인데 今年은 米資需要期에잇서 金組에서 殖銀에 對하야 需資申込이 殆無할만큼 金組의 手許가 潤澤하다하니 이것으로써 볼진대 强制的貯蓄奬勵, 金組의 貸金回收가 積極的이엇든것을 參酌하고서라도 全體的으로 본 農家經濟는 地方購買力의 旺盛과 아울러 例年보다 相當한 潤澤이엇다아니할수업다。

三

둘째로 들것은 鮮銀의 朝鮮金融界에 處한 實力의 膨脹이니 滿洲撤退後의 鮮銀은 再認識된 朝鮮經濟의 開發金融에 全力을 傾注한 立場에잇는때문이다。目下北支, 其他에서 鮮銀은 第一線的軍事金融으로 活躍하고잇스나 이것은 臨時的過渡的役割이오 戰局一段落에 伴하야 北支, 其他에는 各其獨立한 通貨, 金融機關이 出現(北支에는 聯銀이 이미開業하고잇슴)이므로 鮮銀의 活躍舞臺는 朝鮮內에 集中될것이다。따라서 鮮銀은 米穀金融에 對하여서도 三千萬圓의 米穀應急低利資金의 融通이 決定된 正式入報가잇기 前부터도 鮮銀自身이 그支店網과 普通銀行을 通하야 米資를 積極的으로 放出하얏다。또한가지는 殖銀, 東拓이 起債市場의 梗塞으로 內地資金을 充分히 取得할수업는데 對하야 鮮銀이 이것을 補充코잇는 點도 鮮銀券增發에 不少한 影響을 준것이다。

四

鮮銀券의 膨脹이 新記錄을 지엇슬뿐아니라 朝鮮內經濟力은 그計數에잇서 大發展을 보이고잇다。即 十月末現在 朝鮮의 企業資本을 보면 會社總數가 五千三百四十四社 公稱資本 十六億圓 拂込十億六千九百萬圓으로서 前年十月末에 比하야 二… 社, 公稱, 拂込資本二億圓의 激增을 보이어 戰時下 朝鮮의 大陸兵站의 基地的 經濟的 使命을 遂行코잇슴을 證明하얏다。또 最近總督府發表에 依하면 明治四十四年當時와 昨年과를 比較하면 朝鮮經濟力의 伸張率은 預金과 貯金이 三十三倍, 交換高가 二十七倍, 貿易이 二十一倍, 銀行貸出高가 十一倍, 總督府豫算이 八倍로서 이와가튼 伸張은 今後도 그速度를 加할것이다。우리는 決코 이러한 數字에만 滿足하는者아니나 가장 重要產業인 農村經濟에잇서서도 十三年產米는 第二回產米增殖計劃 最高에잇서 二千四百八十萬石에 達하야 昨年產米보다는 減收라하나 戰時下他物價보다는 騰貴가 劣하나 昨年보다도 正租에잇서 一割二分, 期正米에잇서 七, 八分의 高位를 保持코잇슴은 米穀資金의 潤澤과 아울러 마음을 든든히하는바이다。

共產黨側新提案에 國民黨內意見分裂

共黨은組織解體後國民黨에加入하라고 陳果夫等共黨提案에猛反擊

【香港二十六日發同盟】國民政府에 關한 中國共產黨側 新提案은 國民黨內部에 意見分裂을 招來하야 議論이 區區하야 一致치안허 그대로 推移될 境遇에는 重大轉換機에 際하야 國民黨內部는 勿論 國共間에 重大紛糾를 釀成할 念慮가잇스며 他方時局은 抗戰繼續以外의 方途를 不許할 情勢이여서 現在中央軍大部隊의 西轉進行中이므로써 于先軍事情勢의 落着되는것을 보아 黨國의 最高方針을 決定할것이라는 有力한 意見이 擡頭되고잇서 十二月十五日 開催할 國民黨五中全會는 얼마간의 延期를 不得已하게 될는지 도알수업는 情勢이나 그리고 國民黨을 左右하는 陳果夫 陳立夫의 CC團은 어느듯 中國共產黨側 新提案에 對하야 猛烈한 反擊氣勢를 보이고 잇는데 CC團의 見解는 共產黨員의 黨及 三民主義靑少年團에의 加入은 必然的으로 內燃的 赤化作用을 招來할것이오 또 共同委員會의 設置는 共產黨의 抗戰指導權爭奪을 意味하는 指導綱領의 判定과 責任의 共同分擔을 意味한다 政黨이 自己의 主義와 領袖를 擁護하는 一方 他黨의 主義와 領袖까지 擁護하는것이라하야 自黨存在의 根據는 奈邊에잇는가 그때문에 中國共產黨이 萬若三民主義를 信奉하고 領袖를 擁護한다할것가트면 自己의 組織을 解散한後 國民黨에 合倂統合하라 그러치안코서 獨自의 組織을 保持하는 國民黨에 參加한다할것가트면 第一次國共合作에 依할수밧게업다고 應酬하고잇다 (寫眞은 陳果夫)

四川軍과中央軍間 軋轢은遂表面化

中央軍四川進駐變更乎

【香港二十六日發同盟】確報에 依하면 四川軍閥의 首領王纘緖(四川省主席)等 故劉湘直系軍首領은 戰爭하지안코 全市를 焦土化한 長沙實情에 鑑하야 四川은 四川軍의 손으로써 保衛할것이라고 主唱 四川軍의 一大擴張을 企圖하고잇다 右에 對하야 蔣介石은 重慶行營主任張群에게 그制壓을 命令하얏스나 綏靖主任鄧錫侯는 軍의 編成을 그대로두고 內部充實을 圖한다는 妥協案을 提示調停에 努力하고잇다 그리고 省內에는 故劉湘에 對하야 鄧錫侯等 外樣派가잇고 또 土着派도 軍閥의 派閥에 應하야 保守派, 進步派로 分裂 그間汪精衛派와 故劉湘系와의 連繫說이 宣傳되는等 形勢는 紛糾될 念慮가 잇는때문에 湖北西南部로부터 入境한 中央軍은 秀山西陽一帶의 四川東南部에 잇서서 西進을 中止하고 벌써부터 蔣介石軍의 入川計畫變更說이 流布되고잇다

支那負傷兵 國境突破英領으로

【香港二十六日發同盟】我軍의 敗殘兵掃蕩戰은 進捗되여 二十五日來九龍國境附近에서 砲聲이 들리는 狀態인바 香港텔레그라프紙는 이미 約七十名의 支那負傷兵이 國境을 突破 英領으로 遁入하엿다고 報道하고잇다

蘇聯側의對蔣援助 蒙古中心益熾烈化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莫斯科에서의 十一月初旬革命記念式에 出席한 蘇聯某高官은 英國某新聞記者가『武漢攻略後에 支那事變에 對하야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잇느냐』는 質問에 對하야『蘇聯은 事變을 決코 漠然히 보고잇지안타 또 日本이 支那를 粉碎하는것을 默視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될수만잇스면 直接軍事的干涉을 避하고저한다 支那가 獨力으로 抵抗을 繼續할수잇는 동안은 軍需資材의 供給에 끄치고저하나 그러나 危險이 增大할때에는 蘇聯으로서도 西伯利亞나 蒙古方面에서나 어떠한 行動을 이르킬 境遇도 잇슬지 모르겟다』고 對答하엿다고 한다 이말을 證明하는 것으로서 西伯利亞에 잇서서의 事變에의 間接的 牽制의 意味를 만히가진 張鼓峰事件이 蘇聯側의 醜態暴露에 終了하엿스므로 外蒙을 中心한 蘇聯의 對蔣援助는 最近益益熾烈을 極하야 軍需資材運搬은 去益活潑한 一方 外蒙에서는 內部不滿彈壓에 努力하는 同時에 精銳한 歐洲方面赤軍의 大部隊를 同方面으로 移動하고 幹部도 更動하야 그實力養成에 狂奔하고잇는데 對支蘇聯의 意圖는 最近益益露骨化하고잇다

皇族御親睦會 吉川英治氏의 觀戰談御聽取

【東京電話同盟】十一月皇族御親睦會는 李鍝公殿下의 御主催로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澁谷常盤松의 御殿에서 秩父宮 同妃兩殿下, 高松宮同妃兩殿下를 비롯하사 各皇族께서 御參集하사 海軍從軍作家 吉川英治氏를 부르시사『戰塵을 추어서』라는 題目으로 漢口部隊의 活躍觀戰談을 約一時間동안 御聽取하신後 茶菓를 잡수시면서 御歡談하시고 同五時御散會하엿다

羅津港의發展은 蘇聯에一大脅威 海參威紙의揭載論說

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張鼓峰事件以來 極東蘇聯各新聞紙의 論調는 以前보다 對日關心이 增大하고잇는바 最近의 海參威某紙에 羅津港의 事業에 對하야 如左한 興味잇는 論說이 揭載되엿다 日本海一端에 새로운 市街가 誕生하고잇다 그것은 即羅津港이다 羅津은 滿洲國에의 새로운 門戶로서 日本은 이제 大海港建設을 計畫하고잇는데 同港은 이으로 第二의 大連으로서 그地位를 빼앗슬것이다 羅津의 價値는 日本과 滿洲를 連結하는 線上에잇다 即羅津港의 發展은 極東蘇聯에 對하야 經濟的戰術的 一大威脅이 될것이다 蘇聯의 沿海至極東根據인 海參威는 羅津에서 東北百哩의 地點에 잇스므로 日本은 海參威만 손에너흐면 日本海의 制海權을 彼等이 掌握하게될것이어다

兩廣軍政陣容再建

佛印緬甸路線確保策協議 蔣、桂林서大本營會議開催

【香港二十六日發同盟】長沙火災後의 善後措置를 마친 蔣介石은 마침내 中央軍今後의 地盤爭奪戰에 着手하게되여 二十四日 宋美齡을 同伴飛行機로 桂林에 到着하야 大本營에서 軍事會議를 開催하엿다 同會議에는 四路軍司令何應欽 第五路軍總司令 白崇禧 軍事委會委員長 張玉… 其他軍政要人이 出席하야

一、中央軍의 廣西、廣東進入에 伴한 兩廣軍政陣容의 再建
二、右陣容再建에 依한 高級人事의 變更
三、廣西及雲南을 通한 佛印及緬甸에의 路線確保策

에 對하야 協議決定하엿다고한다 그리고 中央軍大部隊의 廣西及貴州進入이 四川軍領袖의 中央軍에 對한 入省拒否的態度에 關連하야 當地外字紙는 蔣介石은 同省의 政變計畫을 變更하고 四川을 暫時措置하고 雲南, 貴州, 廣西等三省을 確保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前後二回에 亘하야 廣西로 進入한 中央軍은 八個師라고 推定된다 (寫眞은 蔣介石)

非常時期鑛工業 暫行條例採擇 廿五日立法院會議서

【上海二十六日發同盟】重慶來電에 依하면 二十五日의 立法院會議는 非常時期鑛工業暫行條例를 採擇하엿다 同法은 國民政府治下의 主要鑛工業에 對하야 出港稅, 原料稅, 轉口稅, 地方稅, 國稅의 減免 或은 免稅를 規定 西南各地鑛工業의 急速한 發展을 促進코저한것이다

河內、海防經由 對支武器取引盛行

【香港二十六日發同盟】河內海防이 支那에 對한 唯一의 海港으로 된以來 同地에서의 英米及支那商人의 居住는 俄然激增되여 夫井에英米國旗를 大書 或은 廣西省마크를 부친自動車의 往來는 急作히 頻繁하게되여 支那의 佛印經由武器取引은 終日 方面에 …

市民은生業에熱心 岡崎廣東總領事談

【東京電話同盟】皇軍의 赫赫한 武威에 依하야 治安이 回復하고 新生의 空氣가 자못 濃厚한 廣東으로부터 總領事岡崎勝男氏가 二十六日午後三時二十五分 東京驛着特急富士로 入京하야 即時外務省에 登廳하엿는데 아직 夏服을 입고잇든 그대로의 모양이엇다 總領事는 四日間 滯在한後 再次廣東에 歸任할터인데 新生廣東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我總領事館에서는 今月九日開館 昨年八月悲淚를 먹음고 香港으로 撤退하던때의 日章旗를 새로운 感激裡에 揭揚하엿다 廣東은 軍紀嚴肅한 皇軍에 對한 信賴에 依하야 支那住民은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

陸鷲、東江南岸一帶 敵陣을徹底空爆

廣東附近殘敵掃蕩戰大進捗

【廣東二十六日發同盟】廣東北方及 東江南方地域一帶에 걸친 大討伐은 軍의 全面的 活動에 依하야 疾風가티 敢行되여 東江南方은 二十五日中에 殆半豫定대로 全地域의 討伐을 마치고잇는데 이 討伐에 呼應하야 陸의 荒鷲의 活躍은 더욱 敵陣上空一帶에 亘하야 銀翼을 連하야 二十五日午前四時半頃에는 平墟, 白雲方面에서 一千의 敵을 發見 이에 猛爆을 加하야 殲滅的打擊을 주고 更히 淡水方面에서도 平湖墟로부터 船舶으로 逃亡하는 敵五百을 發見 英德附近에서 敵을 滿載한 小舟數十隻을 發見 이를 爆沈하엿스며 廣東東北方 廣寧에서도 同時刻頃 軍事施設에 對하야 空爆을 敢行 餘地업시 粉碎하엿다 二十六日도 繼續하야 各地上空에 出動하야 徹底的爆擊을 加하야 地上部隊에 協力 多大한 效果를 거두엇다

冀東匪團續續歸順

【北京二十六日發同盟】冀東地區에 蟠居하고잇던 匪團은 我軍의 屢次討伐한 結果 遂次四散하고 十月初부터는 少數匪團은 無條件歸順의 傾向이 漸次顯著하야 同月中의 그數는 約千二百에 達하엿고 十一月에는 更히 激增하야 二十四日現在二千四百을 增加하야 累計三千七百名이되엿다

蓮花江砲臺 토치카爆破

【珠江蓮花江에서 二十六日發同盟】東江沿岸을 討伐中인 海軍部隊는 二十六日午前六時 ○○을 出發 東江에스케프·크리크에 이르러 同크리크 陸軍部隊와 協力하야 沿岸의 殘敵掃蕩을 實施하엿다 그리고 午後二時半에는 蓮花江砲臺의 토치카○○個를 爆破하야 二日間의 豫定을 마치고 ○○에 歸還하엿다

九龍國境서 殘敵掃蕩中

【香港二十六日發同盟】香港텔레그라프報道에 依하면 日本軍은 九龍國境을 隔하기 三哩地點에서 殘敵을 掃蕩中인데 日本軍飛行機는 猛烈한 爆擊을 하고잇다 또 同紙는 昨夜九龍國境을 突破코저한 支那兵二百名이 英國官憲에게 武裝解除되엿다고 傳한다

滿國明年度豫算 三億八千萬圓突破乎

【新京二十六日發同盟】滿洲國明年度豫算査定은 最近完了되엇다 그結果 明年度一般會計總豫算額은 三億八千萬圓을 突破하게되여 今年度三億四百萬圓에 比하야 實로 七千六百萬圓의 激增이다 그리고 右歲出豫算에 對한 財源은 租稅收入二億七千萬圓 今年度剩餘金五千萬圓 不足額六千萬圓은 借入金으로써 充當할 方針으로 觀測된다

京大後任總長 羽田亨教授로決定

【東京電話同盟】京都帝大總長後任을 推薦하기위하야 急遽上京한 京大總長事務取扱 平野正雄博士는 二十五日午前八時 中村書記官을 帶同 澁谷區代木幡谷의 私邸에 荒木文相을 訪問 後任總長으로서 前文學部長 文學博士 羽田亨教授를 正式으로 推薦하엿다 따라서 荒木文相은 同日 閣議決定을 기다려 上奏御裁可를 仰한後 午後四時 다음과가티 發令하엿다

任京都帝國大學教授 京都帝國大學總長(一等) 羽田 亨
免京都帝國大學總長事務取扱 平野 正雄

杉山元大將 板垣陸相과要談

【東京電話同盟】杉山元大將은 二十六日午後一時 陸相官邸로 板垣陸相을 訪問 要談하엿다

日蘇漁業問題로 北洋同志會聲明決議

【函館電話同盟】北洋同志會에서는 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 函館日魯漁業社에서 臨時總會를 開催 日蘇漁業條約改訂問題에 關하야 如左한 聲明書를 發表하엿다

聲明書

我外務當局이 情理를 다한 日蘇漁業條約改訂督促에 對하야 蘇聯當局의 詭辯은 猶慣하기 끄티업다 帝國政府는 마땅히 斷乎蘇聯으로하여금 右調印을 終了케하야서 兩國正常의 國交下에 吾人은 安心하고 出漁할수잇는 狀態를 實現케하기를 切望함

辭令

總督府辭令(二十六日附)

▲(黃海)總督府道視學官 伊倉健治 任總督府視學官(三等) ▲(大邱)總督府師範學校教諭 朴寬洙 任總督府視學官(五等) ▲(慶北金泉)總督府郡守 竹本利作 任總督府府尹(六等) 命新義州在勤 ▲總督府慶尙北道屬兼總督府慶尙北道警部 一瀨義雄 任總督府郡守(七等) 命慶尙北道金泉郡在勤 ▲總督府技師 本間孝義 陞叙高等官一等 ▲(新義州)總督府府尹 村上耻己 依願免本官 ▲從四位勳一等 八田嘉明 依願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委員被免

人事·集會

▲方台榮氏(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常務) 北支視察次二十五日京城驛發
▲金思演氏(朝鮮麵子會社長)同上

蘇領內滿國公使館의 安全確保를要請

【哈爾濱二十六日發同盟】二十五日哈爾濱에 도라온 下村在哈爾濱財務局特派員은 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二十六日正午 駐哈蘇聯領事代理를 特派員公署에 招致하고 方今滿蘇間에 懸案이 되여잇는 蘇聯內滿洲國公使館安全確保에 關한 問題에 對하야 滿洲國側의 公正且嚴然한 態度를 通告한바잇섯다

上海九國十二團體 在支權益恢復要求

共同決議案을各其本國에通告

【上海二十六日發同盟】上海在留第三國人은 아직 作戰區域中임에도 不拘코 一路戰區內에 存在한 在支權益回復을 高唱 我現地當局에 對하야 이것을 要求할과가튼 照會書를 보내는者가 頻頻한 모양인데 最近에 이르러 英米佛等 九個國十二團體는 如左한 共同決議를 採擇하고 各其本國政府에 通告 日本에 對하야 在支權益을 回復코저하는 態度를 取하게된것이 判明되엿다

一、土地章程에 基하야 온갓 權利保留, 上海共同租界及 佛租界의 情勢에 關한 干涉의 排除及 이미 行使된 侵略의 撤去
一、鐵道, 海運, 商業, 航空路及 自動車路等의 便益復活하고 長江流域及 其他地域에서의 交易市場及 中心區域의 往來를 自由롭게할것
一、九個國條約에 依한 機會均等의 原則으로한 門戶開放主義에 背反되는 온갓 獨占主義의 廢止及撤廢
一、治外法權條約에 基한 權益의 承認及其維持

日滿支經濟 大阪懇談會開催

【大阪電話同盟】東亞의 新秩序建設에 即應하야 日滿支經濟의 新體制를 確立할 礎石이 될 歷史的使命을 가진 日滿支大阪懇談會는 二十一團體 共同主催下에 二十六日 午前十時부터 新大阪호텔에서 開催 來賓側滿洲國代表 丁鑑修 北支代表 殷同 中支代表 王子惠 蒙疆代表 金永昌 各氏以下 四政府代表 現地軍官民五十餘名以外에 日支政府側代表로서 原對滿事務局次長 橫… 貝陸軍省滿蒙班長, 入間野大藏省銀行局長 在阪財界有力者 百餘名 出席下에 安宅大阪懇談會委員長의 開會辭에 이어 皇軍感謝決議를 行하고 實際懇談會委員長(代理)으로부터 人事를 述하고 日本側代表 原邦道氏及 四政府代表로부터 各各人事가 잇슨後 新東亞經濟의 建設結成에 積極的으로 協力할것을 强調하고 午前의 日程을 마치엇다 午後는 一時부터 一般貿易及 第一分科會의 一般產業及 纖維工業關係의 懇談에 드러갓다

政友臨時總務會 總裁急速設置可決

各總務代行委員歷訪要請

【東京電話同盟】政友會臨時總務會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芝三緣亭에서 開催 堀切總務外各總務(大口喜六氏缺席)及 砂田幹事長 出席下에 懸案의 總裁設置問題에 對한 總務會의 態度에 對하야 協議한바 各總務로부터 各各의 意見을 開陳하엿는바 結局總裁를 急速히 設置하여야한다는 原則에는 이미 意見이 一致되여잇스므로 此際에 總裁問題를 遷延함은 黨情을 益益 不安定케하는 結果가 되는터로서 各總務는 鳩山、前田、島田、中島 四代行委員을 訪問하고

一、總裁候補의 單一化가 可能하다면 急速히 그單一化를 圖하야 總裁設置工作을 進展시켜주기를 바란다
二、萬若漠然一體가 되여 總裁候補를 單一로 함이 不可能하다면 다시 새로운 方策을 考慮하기를 바란다

라고 進言하야 善處를 要請하는 同時에 幹事長은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열릴 代行委員會에 出席하야 總務會의 空氣를 報告하고 午後一時 散會하엿다 그리고 同日午前十時부터 本部에서 開催豫定인 常議委員會는 砂田幹事長의 希望에 依하야 中止되엿다

朝鮮米買入 決定數量 玄米四十一萬叺

朝鮮米買入決定數量은 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로부터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玄米 四一三、五一三叺

買入事務所別內容

京城 二〇四、七四一叺
群山 一五〇、九六〇叺
釜山 五七、八一二叺

買入成績良好

【東京電話同盟】去十九日賣却決定한 政府米四十三萬九千石의 買入成績에 關하야서는 農林省은 二十六日滿額의 好成績이라고 發表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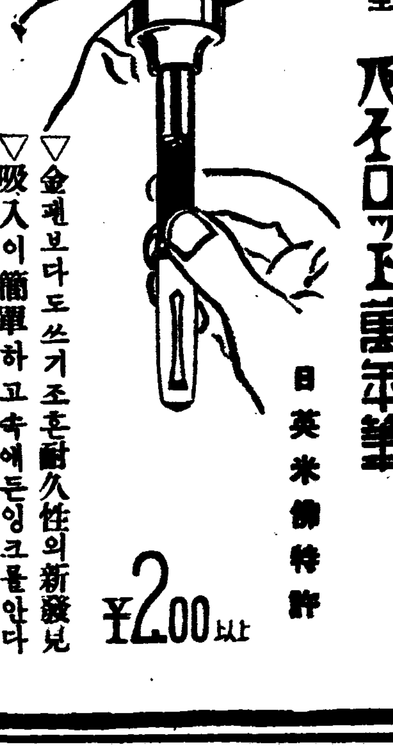
買入米合計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單位石)

內地米合計	二六三、〇一八、〇
朝鮮米	一六五、四〇五、二
內京城	八一、八九六、四
群山	六〇、三八四、〇
釜山	二三、一二四、八
臺灣米	一〇、七七三、二
合計	四三九、一九六、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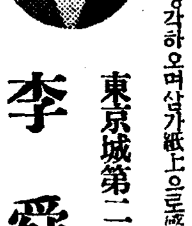
004162

尿의病과 性病……에 早期自療의效果 (無代進呈) 禁斷文獻
淋病, 膀胱炎, 尿道炎, 淋疾, 消渴, 오줌소태는 病은 곳慢性이되야 좀처럼낫지안코 더惡化되야 어려워지는것이다。그러나 하로바삐 根本的療法으로 고치지안으면안된다。和歌山市公園前大道自療堂學術部는 本病者를 爲하야 早期自療의效果書籍을 無代로 進呈하야 本書를 通하야 專心療養을 指導한다 難病者는 朝鮮日報讀者라고써서 葉書로 申込하라



嬉しいお知らせ
洋裁와手藝면뭇엇이던지아는 『洋裁講習錄』見本과 月刊『洋裁의研究』三個月分無代進呈
校舍增設 校內生募集 東京牛込舟河原町 公認 東京高等技藝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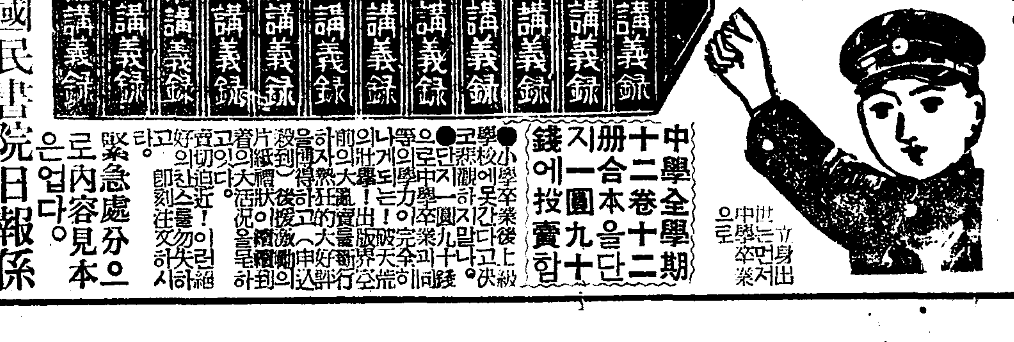
頭痛新藥 ノーカイ 定價三十錢 一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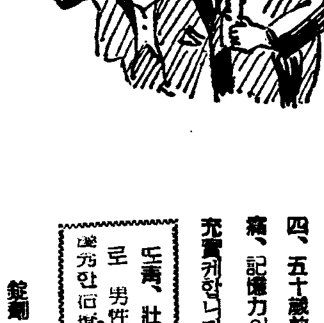
當籤謝禮
本人이 客月第五十五回國民彩券頭彩가 當籤되얏삽는바 …感謝를表하나이다
東京城第二區 李舜鎔


御宴會時は易しい柄 文友食館 安國町·以文堂三階 電光③二七〇一

朝報案內
醫師招聘 江原旅館
旋盤工募集 內鮮人十數名(年齡不問)旅費支給 朝鮮商工會社 鎭南浦鐵工所
各種寫眞機及材料一式 カタログ進呈 中古機械レンズ類 買賣交換酬應 京城府西大門町 東亞寫眞材料商會 電話光化門二〇六八番

學生募集 奉天自動車株式會社附屬
舊名 滿洲自動車學校 改稱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每月一日新學期開始 本科一個月 受驗科二個月卒業
創立以來十六年 設備全滿第一 合格率最高、就職迅速、在學生二百名、寄宿舍完備 活動寫眞教育 乘用車及トラック兼習 ▲學則請求時要三錢切手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電話(二)二四九四番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一合本을 단지一圓九十錢에 投賣함

發賣元 大阪東淀川局區內西町 振替大阪五九二番 合資會社 國民書院 日報係

初老期의强精

四、五十歲前後의 精力減退、疲勞倦怠、聽視力의 衰退、頭痛、記憶力의 低下等의 老衰現象을 豫防、回復하야 活力을 充實케합니다
男性ホルモン エナルモン
錠劑 二〇錠(二圓五〇) 五〇錠(八圓五〇) 一〇〇錠(一六圓) 注射 〇·五cc 五管 一〇管 二〇管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製造元 株式會社 帝國臟器製藥研究所 川崎市大宮町
武田發賣品

故人、스크린에生動
滿堂觀衆肅然鑑賞
展覽會에는映畫朝鮮의總財産出陳
豪華! 空前의大盛典

本社主催

영화제의 첫날—조선영화사에 에꼭옮지온 본사주최 제일회영 회제의 첫날인 이십륙일은 낫 영한시부터 제일회장인 전남회 가 오전열한시에문을열엇는데오 후다섯시까지 몰려드는 군중은 끄칠줄몰라서 무려천여명에 달 하엿다 한마로에모혀진 영화조 선의 생생한역사와아울러 섬섬 과성의를다하야 안내에 분주하 는 남녀영화인들 문화에대한 사 랑스런 애착과 감격으로서 때 의 호흡을 잇게하엿다 특히이 날의 인기는 영화인 들의차 인과 푸로마이드로서 그가운데 예의 문예봉(文藝峰) 한은진 (韓銀珍)등 여배우의 푸로마이 드는 매진해 버리는 성황이엿섯 다 그리고 이날의 이채로서는 시굴소학교의 견학단체로서 생 전에보지못한 기게와사진을 또 려지라고 들려다보는양과 이름 만듯던 배우들의 얼굴을 바라 보는어린 눈초리들은 신기와동 경이아득하엿다

제이회장인 부민관에서는 나 운규의밤인 명화감상회가 열리 엿는데 정각여섯시반에 벌써장 내는 송구라 하나를 꼬즐틈이 업시 관중이 몰려들어·맨처음 에 상연된 영화『아리랑』에맛처 서 날뛰는 영진(永鎭)으로 분 장한 옛사람의 얼굴이 스크링 에 나오자 관중은 박수로서 추 도의 뜻을 표하고 긴장과감격 가운데서 성동호(成東鎬)의화 (尹華)양씨의 해설로 못난다음 나씨의 감독작품인 발성영화『오 몽녀』가 끗나고 연극『마다른 끌목』이 상연되엿다 막이돌리 자 영화인의 언파!레드!일랑 에 모힌 현역배우사십명 연기 와 호흡이 정말연극인에 지지 안케 마저들어가서 관중은 도 취경에 사로자피엿다가 밤열시 경에 첫날은 성황으로 첫날막 을 내렷다.

今夜上映프로
沈淸傳파임자업는나룻배

세이일인 오늘이 최후밤에는 나운 ... 부민관에서 낫열두시반부터와밤 여섯시반두차로 발성영화 심청 전(沈淸傳)과 무성영화『임자업 는나루배』외에 역시사십여명영 화인의 총출연으로 연극『마다 른끌목』이 상연될것이다

映畫祭畫報
(上)五夢女上映場面
(下)마다른끌목 演劇

救命艇의出動도歸虛!
激浪으로搜查極難
屍體發見도絶望
崔飛行士犧牲慘變續報

【大阪支社電話】 향토방문비행도 중이 생된 최진상(崔鎭祥)군의 시체는 사고발생후 일본공수 회사의 무중(武中)조종사가 「푸스모스」기를 조종하고 공중에서 수사를하고 또 함께 탄(단)고선주(高善柱)비행사가 항공국의 고(橋)기사와 수상서원과함께 구명정(救命艇)을 타고 현장에 나아가서 극력수사를하엿스나 아모런효과를 보지못하고 비조으로도라오고 말엇다 최비행사가 떠러진것은 그대마침 약팔구백미돌의 노피로 날르고 잇섯는데 갑자기『에어포켓트』로드러가 공기가 히박한탓으로 대동요를 일으켯스므로 이통에 최비행사의 몸이『밴드』를 흔들히 매지아허서 공중으로떨 겨지고말엇이다 이때 최비행사와함께 그가가지고잇던 소지품조차 모조리떠러지고말엇는데 불의에 동승햇던 최군을 일허버린 고선주비행사는 그벗이떠러진 바다를내 려다보고 배가 세척이잇섯음으로 어떠케할만하면 구원을바다게 될뜻하야도 생각하야 현장부근을 여러번 차저보앗스나 최사리차즐수가업섯스므로 공목지천비행장으로 도라와서 구원을 청하엿던것이라고한다

李鍵公妃殿下 御着帶

리건공비(李鍵公妃)전하께옵서는 어착대(御着帶)의절차를 무사히 마치섯다고 이십륙일 오전에 동경시부야구반송정(澁谷常盤松町)리건공저(邸)로부터 조전(篠田)리왕직장관에게 전보가 드러왓다한다

最後까지搜查할려
鄕土訪問飛行은中止

【大阪支社特電】 고선주(高善柱)비행사는 향토방문비행은 우선중지하기로 하엿고 급보를 듯고 경성으로부터 비행기로 이십륙일 저녁에 대판에 도착한 장덕창(張德昌)비행사와 협력하야 최후까지 최진상(崔鎭祥)비행사의 시체를수사하기로되엿다

崔君의父親
大阪으로急行

【光州에서特派員崔植發電】 이십륙일 오전열한시이십분 대판비행장을떠나 향토방문의 장도에오른 최진상군이 불의의 추락을한데 대하야 방금 광주에와잇던 최군의부친 최화극(崔化極)씨를 청약(泉屋)여관에 방문하고 그당답을전하니

한숙 너무나 돌발적인 의외의 일에 놀래여 선발대로 광주에 와잇는 원포(猿谷)일본 파라슈「트」회장은 여기에대하야 사고가생겻다하더라도 참사하엿슬리는만무하다고 위로하야 함께대판으로 출발하게되엿다。

광주향토방문후원회장 구(具)광주군수는 말한다

아직상보를 접하지안핫스므로 무어이라고 말할수업습니다 사실이라면 원통한일이다 지금 대판비행장에 전보로조회중이며 당지의중하환영회는 이십칠일 오후여섯시 춘목(春木)정에서 열작정이엿는데 자연 무기연기가되엿다

(사진은 최군의부친)

未曾有의事故
眞相愼重調査

【大阪電話同盟】 최진상(崔鎭祥) 비행사의 조난사건은 전국적으로 전에 그예가 업는 사고이니만치 항공국대판출장소에서도 신중히 조사를 진행하고잇다 그리고사고를내인 비행기의 뒷자리에는 그 사고순간을 말하는듯이『밴드』가 찌저저서 달려잇고 전성판(傳聲管)의 고무줄도 떠러저 잇스며 입자업는 구두가 쓸쓸히 남어잇서 어쩐지 압담한 늣김을 주고잇다 그리고항공국 고(橋)기사등의 구명정도 오전열한시반부터의 한시간의 수사와 무중(武中)조종사의 수사도 마침내 바다의 파도가 심하야 아모런 수확도 엇지못하야 단념하고 도라와서 마침내 최군의 시체수사도 절망에 빠젓다

羅津特別都制
國策上見地에서期於코實現
自由港案은當分保留

지난번장고봉(張鼓峰)사건이래 북조선의 국방상 경제상 지위는 한층더 중요하게되여 라진(羅津)웅기(雄基)청진(淸津)의소위 북조선삼항의 시설확충은여간긴급한 문제로되여잇지안는데 개중에도 라진부는 가장중요함으로 총독부에서는 라진부의대확충시설에 대응하야 명년도부터 종래의 부제(府制)를 폐지하고 행정, 경찰 세판등 모든권한을 전엄하는 칙임청장(勅任廳長)을두는 조선최초의 특별도제(特別都制)를 실시하기로되엿는바 이실륙일 대야(大野)정무총감은 륙어칠천만원의 금년도총독부예산을 가지고 그설명차로 동경으로떠나면서 이라진의 특별도제에대하야는 그것이 국책에서 우러나것이니만치 기어코 실현할것을말하엿다

그리고 라진의특별도제에는 청진(淸津)은 포함이되지안컷스나 웅기(雄基)는포함이되엿다고하다 도라진을 자유항(自由港)으로 하겟다는것은 당분간 실현되지안흐리라고한다

白金代用貴金屬
코룬브鑛을發見
江原道地下에新資源

백금(白金)대용 귀금속으로서 세게에드문『코룬브』광이얼마전 총독부지질조사소내의 서만국경 간이조사반의 산구(山口)기사의 손으로 압록강상류 삭주군(朔州郡)에서 발견되여 전시하지하자원 개발에매진하는 조선광업게에 만장의기염을 토하엿섯는데 지난 이십일 어떤사람이 전기조사소에 강원도에서 발견하엿다고 가지고온 광석이또한『코룬브』광석인것이 판명되여 강원도지방에 다량이 매장된것이판명되엿다

連三夜成績頗好
"이만하면"程度로防空訓練及第
今日午前九時에完了

이십륙일오후 세시오십오분 훈련공습경보의『싸이렌』소리에다시금장안은 숨을죽이고 적기(가상)격퇴의 방공포화와 함께각방호분단에서는 맹렬한 활동을계속하엿는데 오후다섯시 오십분에무난히 적기(가상)을 격퇴하야 훈련공습경보가 해제되엿다 이때는 밤서풍은저물을 날이리장안에는 어둠사리가 자옥기어드럿는데 훈련경게경보는 그대로실시된채 어버방공훈련 최종밤을 마지하엿다 이날밤 각방호분단에서는 최종의 백열적훈련을하고 그대로 긴장을계속하야 대기를 하고잇섯다 아니나다를까 다시 올지도모를 공습경보에대비하야 모두들 대기체세를 그대로 지속한채 이날밤은 기퍼갓다 이날 오후네시오십분부터 삼교(三橋)경무국장은 대야(大野)총감대리로서 야구(野口)대좌를 대동하고 조선신궁에서 낫가는 훈련에서 야간공습판재로 옮겨가는 훈련사항을 시찰하엿는데 특히 본정(本町)일정목 이정목에서 경게관제에 허락된매광반지하엿다 어떠지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약 사십분간 계속 된후 기 바휘, 바쏙, 피난등 각종 훈련을 실시 하엿다 미사한광의 광도(光度)를 어떠케할 축광의 광도(光度)를 어떠케할 이용하야 각상점등의 상업이 계속될수잇는가를 세세히 시찰하엿다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 시작된 제이십사단파구의 팔도에 걸친 종합방공훈련은 이리하야 최종야까지 우량한성적으로 마치고 이십칠일 오전아홉시로써 완전히끗나게되엿다

(사진은 소이탄의처리광경)

記念圖書出版
吳世億、李淑謨氏結婚記念
盧良根氏童話集發刊

시내화동정(花洞町)에잇는『조선야세상에서』라는 큰책을 발간하기념도서출판부에서는 이번에 제이회로 동화작가(童話作家)노량근(盧良根)씨의 저작인 동화집『날아다니는사람』이라는 책을새로 발간하엿다 이것은 작년십이월에 결혼한 오세억(吳世億)리숙모(李淑謨)두분의결혼기념으로 출판하게된것이다 지난번에 제일회로는 리잇(李仁)씨의가친 김구경(金九經)씨의 저작인『조선고자(?)... 』를 발간하여 만히바잇어씨엇 조흔성과를 만히바덧는데 이번에 제이회도 이동화집을 발간하야 아동들의읽을거리로세상에 바치게된것이라한다 이조선기념도서출판에서는 아프로도 두고두고 기념사업을 하고시위하야 무슨기념사업을 하고시퍼하는이가 잇슬때에는 사회에유의한 적당한 글을 추천하야 출판하게할터이라한다

侍天敎徒大會

시내견지정(堅志町)에잇는 시천교(侍天敎)에서는 교제를 변경하야대동일진회(大東一進會)로조직하게되엿다

日曜講話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信仰生活 金永羲 氏
午後七時
音樂禮拜 培材基督靑年主催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敬拜 朴淵瑞 氏

◇中央禮拜堂 午前十一時
感謝 邊永瑞 氏
午後七時
禮拜 沈明變 氏

총딱

○ 향토방문의장도도 중에 최군(崔君)은 아깝게 희생되엿스나

○ 어찌붕지를 그대로 묵힐것이냐, 바쏙이남어거던 외쪽이남어거던,

○ 어왕히생된동지의 유지를위해서라도 남은 고군(高君)다시고군분투하라

○ 하늘이 노한줄은 볼래 알엇섯거던 그돈도노함지저。

今日天氣 晴

廣告

今日의 運動

◀럭비=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選手權大會 朝鮮豫選 決勝…培材中學對京城師範 午後二時 京城運動場(觀覽無料)

世專對延專劍道

世專對延專劍道試合은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延專道場에서 姜樂遠氏審判下에 열리어 兩便이九名式出場하야 接戰을演하엿는데 이것이 朝鮮에서 專門校로서는 처음열리는 劍道試合이라한다

宋、沈兩君快勝

宋基完(左右田)對花田、沈相昱對山口(大日)의職業拳鬪戰은 지난 廿三日午後六時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擧行한바 沈君과宋君이判定으로快勝하엿다

養正 31 (14 17 / 13 14) 27 京畿

養正	前	後	反
F 吳相陽	2	2	4
金正泰	1	6	4
高主俊	2	0	12
G 李喬相	1	0	0
G 李福祥	1	0	0
安鎭福	0	0	2
具相福	0	0	4
	9	14	17

京畿	前	後	反
F 朴漢洙	2	5	2
朴炳鎬	2	6	2
C 金南鎬	7	2	1
G 文德周	1	0	1
鄭萬和	0	0	1
崔炳祖	2	0	1
	14	13	9

【第二次戰】第二部…京畿中學對養正中學戰은 同日午後三時四十二分부터 曹東煥、李文鶴兩氏審判下에 열리엇바 結局三十一對二十七로 養正軍이 得勝하엿다

徽新 28 (12 16 / 13 11) 24 中東

中東	前	後	反
F 李懿載	3	5	2
李晳辰	2	0	3
C 李永雨	4	0	3
G 閔庚琳	2	3	3
李明實	2	5	0
	13	13	11

徽新	前	後	反
F 鄭國勳	4	2	4
池鍾泰	0	2	3
金利結	3	3	2
C 黃材三	2	3	3
G 兪弘濬	6	0	4
張元一	1	2	0
金鎔一	0	0	0
	16	12	16

中等籠球第十四日
徽新全勝
京工、中央、養正各勝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第十二回京城中等學校籠球聯盟戰 第十四日의 商工對京工、高普對中央、中東對徽新、京畿對養正戰의 네게임은 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鐘路靑年會室內코-트에서 擧行되엿는데 이날은 파란만은 本部에서는 ... 京工과中央이 不戰一勝하엿고 第二次戰의 中東對徽新戰은 兩軍白兵戰을演하더니 中東敗하야 二十八對二十四로 惜敗하니 徽新은依然全勝하엿스며 養正이 京畿를 물리처서 勝捷하엿다 그리고明二十七日은 休戰하고二十八日에는從前戰拔日程表에 依하야 午後六時부터 競技를 開始할터이다

京工 2…0 商工
中央 2…0 高普
徽新 28 (12 16 / 13 11) 24 中東

【第二次戰】第一部…全勝의徽新對 五戰四勝一敗의 中東戰은 同日午後二時四十二分부터 安台鎬、金振秀兩氏審判下에 開始되바 前半戰十分에 五對五同點된後 兩軍『롱숏』과『드리블슛』은 모두不正確하야 得點치못하엿더니 十二分에는 中東 野投成功으로 十對八로『리-드』 十三分에 十對八로 徽新優勢를 보인後 十四分에는 十六對十一로『스코어』의 距離가 생기더니 그대로 前半을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 三分에 中東 長距離投射로 十八對十六으로 接近하엿스나 또다시 徽新의『롱숏』奏効하야 二十二對十六으로 依然優勢를보인後 連續하야 兩軍奮戰하더니 二十一分에는 二十五對二十二으로 徽新『리-드』 十三分에는 中東 一自由投成功으로 二十五對二十四의 一點差로 겨우徽新이 優勢하더니 連다라 徽新 一自由投와 野投成功으로 一擧三點을어더 結局二十八對二十四로 徽新이 四戰四勝의 全勝을 依然確保하게 되엿다

中等籠球聯盟戰14日現在

【第一部】

	學校	比率
3	大東	0·666
2	培材	0·750
1	徽新	1·000
6	京師	0·200
5	協實	0·500
3	中東	0·666
6	徽文	0·200
8	靑年	0·000

【第二部】

	學校	比率
1	普通	1·000
6	普成	0·500
2	養正	0·875
4	遞信	0·666
9	電鐵	0·100
3	中央	0·800
8	京工	0·250
5	善隣	0·600
10	高普	0·000
10	商工	0·000
6	京畿	0·428

◀十一月二十七日(日曜)陰十月六日 ◀干支癸亥 ◀日出午前七時二十四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一分 ◀晝間九時五十三分 ◀月出午前十一時八分 ◀月入午後九時五十二分 ◀滿潮(仁川)午前七時五十五分 午後八時二十分

神經痛 ロイマチス
皇漢特殊 ひやくすり
白王華
●여러가지 치료를해도 낫지안는분들도
●가끔失望할것이 아닙니다
●白王華로 이바지하시요 名藥을實驗하
內地에잇서서는信用絶大·널리全道에 賣藥所를募集합
地盤確保·讓渡保證·早速配給所에申込하시요
本舖·東京 株式會社 栗有堂
朝鮮配給所 京城府社稷町二八

奉仕界의巨彈七萬圓의大奉仕

朝鮮初有의大壯擧!
家庭救急常備藥十二種式 (定價六圓)
一萬箱無料進呈

● 本社는 非常時國民健康을爲하야 以藥報國의 犧牲的大奉仕로 總額七萬圓의 家庭救急常備藥一萬箱을 提供하야 全鮮 百補丸愛用人士 一萬人께 無料進呈하기로 하엿습니다

● 이것은 實로 朝鮮藥業界有史以來 前無後無의 驚異的大奉仕인同時에 平和堂이아니고는 하지못할大壯擧입니다

● 只今百補丸을 服用하면 藥効도잘날뿐아니라 家庭保健에絶對必要한 救急常備藥十二種式(定價六圓)은 거저엇게되오니

● 勿失好機하시고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기 바랍니다

無料進呈하는 家庭救急常備名藥

一	疲勞後房事補精	正氣速補散
二	吐瀉急滯救急藥	唐麝香蘇合丸
三	健胃消滯	蔘茸靈神丸
四	회충약	金鷄納
五	부스럼피풍약	皮膚萬能水
六	다친데상한데	沃度丁幾
七	회충신약	회충산
八	두통약	健腦神
九	담기침약	祛痰鎭嗽藥
十	해열진통	感氣藥
十一	同	同錠劑甲
十二	同	同劑乙

合十二種福箱入 定價六圓也
京畿道警察部許可濟品

進呈方法

●家庭常備藥十二種保健箱(定價六圓分)은 百補丸一劑注文마다 同時에 同包進呈합니다
●婦人百補丸、少年百補丸、其他十全·六八味丸等 本社特製丸藥으로 十回以上注文人께도進呈합니다
●注文할에는 必히『家庭藥十二種付注文』이라고初行에記入하여야됩니다

百補丸
조경보대 婦人百補丸

天下에百補丸以上 조흔補藥이업습니다

● 食事나陽氣나筋力에나長壽에나 무엇에나世界어느나라 藥보다도 百補丸이 越等이 効力이優勝합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肢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 咳嗽가잇는분, 活氣가업고 여위고 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 어느藥이나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京城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 振替五番

中部版

仁川商議에서 貿易部會開催

【仁川】인천항의 무역을신장시키고저 각방면에서 맹렬적노력을 앗기지안코 분투하고잇는이때에 인천상의에서는 수출입임시조치법(臨時措置法)에따한 외환제를연구키로 결의하고 오는이십팔일 오후세시부터 인천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무역부회를개최코 무역향상이념으로서 금융제를 토의하야 그결과관계당국에 요망하려는바 토의의안은다음과갓다

討議案

一、輸出入臨時措置法緩和에關한件

一、輸出入好望研究에關한件

一、國際當局內의外國爲替管理緩和에關한件

夜間金庫도總動員 稅金完納에邁進

今月은稅金을第一만히내는때

總額一百九十萬九千餘圓

이달팔일까지가 납기인세금은 소득세제이기분 영업세제이기분의 임시이득세제이기분의 국세의납세자가 경성부내에서만 사만이천이백칠십일명 세액이 일백구십만구천백사십오원으로 여기다가 도세부가세와 부세부과세를합하면 이백삼십일만원이상으로 작년동기에비하면 사할사분이나만히 금년중에서 제일만히 세금을 바치는날이다 부당국에서는 기한이 당박하엿스므로 이십칠일부터 마지막날인 삼십일까지 야간금고까지 총동원하야 납기안에 전부징수가되도록 납세자의협력을 바라고잇다

事變稅納期切迫 一般에協力要望

高久京城稅務署長談

今月은國稅中事變稅를 包含한 第二種所得稅 營業稅 個人臨時利得稅第二期分의 納期로 京城稅務署管內 總調定人員四萬二千八百二人 稅額百九十二萬五千四百十五圓으로 納期最終日이 今月末日임으로 高久京城稅務署長은 左記와가티 一般에喚起를要望한바잇섯다

今月納稅는 特히時局財政에直接關聯됨으로 目下府廳과 各面에서는 全職員總動員으로 完納을期하고 整理에奔忙中인데 眞實한納稅報國은 官民의 理解協力에期待치아니하면아니된다 이미機會잇슬때마다 또는 新聞紙上을通하야 말슴한바와가티 事變下에잇서 銃後國民의 聖戰에參加하는方途는 直接間接으로여러가지잇스나 무어보다도 納稅를完全히함이 가장重要한일이다 더욱今月納期의事變稅는 直接砲彈이되고 軍糧이되고 飛行機가되며 皇軍戰勝의 基因이 되며 其他各種戰費에 또는 公債利拂에 直接至大한 關係가잇슴으로 一般納稅者도 充分理解하야 愛國精神을 納稅上에 反映하야줌을바란다

我帝國은 事變勃發以來 未曾有의 重大時局에 直面하야 聖戰一年有餘我勇敢한 皇軍은 東洋永遠의 平和確立을爲하야 力戰奮鬪 世界戰史上 燦然한 戰果를 거두고 難攻不落을 자랑하든 武漢三鎭도 陷落하야 帝國의 偉容을 堂堂히 中外에宣明한것은 慶賀하야 마지안는다 然이나 事變은 이것으로써 終局을 告한것은 아니다 오히려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우리銃後國民도 長期對戰 長期建設에邁進하지아니하면아니될줄생각한다 戰費의 莫大함은 小學兒童들도 잘알고잇는바로 其外에도事變戰費타고할多額의 一般經費가必要함을 기괴認識하야 事變新段階에 드러간오늘날 우리의時艱인忍耐力을充分發揮하야 率先納稅함이 現代國民의 名譽인同時에 重大한任務라고생각한다

皇軍의辛苦를 생각하고 英靈에對하야 感謝하는마음으로 忠君愛國의精神을 社會公共上에表現하는것은 먼저 納稅의 重大義務를充分히 履行할것을잇지마러주기바란다 期限이切迫하야 이미納付 하신분과 또는 納稅資金은準備하신분이 十分수일것으로 생각하나 期限의 最終日을기다릴것 업시 一日이라도 速히 納付하여서 相互間에 弊를끼치지안토록 하로빨리방치면그만치國運이伸長하고 이를이빨으면 그만치速히 飛行機가 될수잇다는것을 생각하면 참으로意義잇는일이아닌가

第一期分은從來에 全國一의滯納成績이 斷然向上하야 時局認識을充分表現하얏지만 僅히一部分의사람은 失念과無認識에依하야 滯納이되고 特히相當한사람으로 滯納者의汚名을 遺憾上에남긴분이잇서서 甚히遺憾이엿스나 前回에滯納한분은 今回야말로 滯納되지안토록 또는一般納稅者中에도 여러가지 困難한境遇가잇는분도 잇슬줄생각하나 以上에말슴한바와가티 무어보다도 國家의 一員으로서 銃後國民으로서 期必코 完納하여주시기를 切望하는바이다 特히 大京城의 府民이 一層自覺하야 期限까지 持參納付를 勵行하야 圈通的成績을 表하야 半島의 名譽를 爲하야 國家財政을 爲하야 善處貢獻함이되문 勿論이고 참으로 面目을 一新하게되는것이니 이點에 特히 關心하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非常時에도 不拘하고 傲然滯納하는者에 對하야는 善良한 納稅者各位에 對하야 未安한 일임으로 納期經過함과 同時에 直時手續을 經由하야 滯納處分을 執行하게될터이오나 이것은 決코 稅務署의 진겨하는 手段이 아니고 實로 手苦가늘고 彼此에 不快한일이니 協力納稅를 目標로하야 事變下에 處한 國民의 忠誠을다하기를 바란다

臨時淸潔法施行

鍾路署管內에서

시내 종로경찰서관내의 임시청결은 십이월일일부터 이틀동안 시행하게되엿는데 상세한시 은 다음표와가트며 비가오는경우에는 십이월이일이후에 차례대로 미루울터이라한다

施行區域

十二月一日 公平町 仁寺町 鍾路二丁目、三一三〇、六七一一〇一、樂園町 敦義町 鍾路二丁目 三一一六六 鍾路三丁目一一五 八六一一〇二 貫鐵町 觀水町 長沙町 授恩町、鳳翼町 薰井町 鍾路三丁目、一六一八五 一〇三一一八〇、八判町 三淸町 花洞町 昭格町 寬勳町 堅志町 苑洞町、嘉會町 齋洞町 慶雲町 勸農町 雲泥町 益善町 臥龍町、苑西町

十二月二日 唐珠町 西大門町一丁目 二〇一二九九 一八七一

三三七 西大門町二丁目 內需町一一六 一一〇一一二五〇 都染町一一八一終 西大門町一丁目 一一一九 三〇一一六六、光化門町七七一一二二三 鍾路一丁目二一三八 六九一九九 松峴町 安國町 中學町 壽松町 司諫町 光化門通二一七六 瑞麟町一一九二 淸進町一一一二七 鍾路一丁目三九一六九 宮井町 孝子町 新橋町 淸雲町 光化門通一 玉仁町 通仁町、積下町 積上町 體府町 昌成町 通義町 積善町 內資町、社稷町 觀雲町 內需町七一一〇九

第一第二高女校에 菜園千坪式寄付

明水臺木下榮氏美擧

【京南】명랑경성대의 거설을목표로 개정된시가지령에의한 상공、주(商、工、住)의 지역설정과 급격발전에반하야 부내도심지대에잇는 각학교에는 시가지계획에의한 도로망의 시설개폐등으로 운동장 학교원등이갈축될경향이 잇는데다가 또한 인가의 조밀한관계로 아므로 화장할때에는 도저히 할수업는지역을 점한판계로 천재생도들의 보건상에도 부적당함은 아니라 일반부민에게도 은연중 불쾌갑을 갓게되여 벌서부터 부에서는공기정화한 근교에 생도들의 즉물교육(即物敎育)과 근로봉사의 판려을배양할 교육 록지(綠地)를 설치하고저 적극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거듭하고 잇는데 또한 이의기운을 조장코저 현부회의원인 명수대(明水臺)주인목하영(木下榮)씨는 솔선하야 월전에 제일고등녀학교와 제이고등녀학교에 부를통하야 각천평식채원(菜園)을 기부하고 록청에주린 도심지대의 녀학생을 토향이 끄러오르는 경남근교로 군집케하며 또한교육 록지의문제를적극적실현할주장을 보히고 잇다한다

韓仁善氏特志

음식업자의 특지ー시내청량리정(淸涼里町) 일백칠십이번지에서 음식점영업하는 한인선(韓仁善)씨는 경성방호단조직에 열심껏 활동하더니 금번 방공훈련에는 주야로 활동하는방호공구(東區) 제육지구원일동에게 주식을조대하야 부근에칭송이자자하다

함석"煙筒"도飢饉

暴利貪하는鐵材商들

開城署에서徹底히摘發團束

【開城】따뜻하든일기가 갑작스리한파가 습래하자 요즘개성양철점가게에는 연통주문이 쇄도하는 형편인데 철강물사용제한(鐵鋼物使用制限)에의하야 『함석』을맘대로 못하게 되엿스므로 철재기근으로 주문에 응치못하는형편이며 따라일반 가정에서는 방한에대한 무장 준비를 못한집이 만타한다 그래서 요즘연통 장사들은 품할석을 구해다가 또드려가지고 연통을 맨드러파는형편인데 작년에한개에 이십오전하던것을 칠십오전을밧는다고한다 그런중에도 더욱폭리를탐하는간상배들은 일원이전까지밧는자가잇게된바 어사실이 개성서경제계에탐지되여 그렇소화하야다가 폭리의사의유무를엄중조사하고잇다는바 금후일반철재상에게도 주의를환기하리라한다

004163

地方人事

▲緒兼旭氏(地方森林主事慶砂保安林區駐在) 今般新任人事次本報蘇萊分局來訪

▲澤田稔氏(仁川府視學)新任人事次本社仁川支局來訪

朝鮮產"베니야"板 各國에輸出決定

貿易仁川의새로운朗報

【仁川】항도인천의 무역액은일중전가의 혐세로 점차 그발전을 용중무역한으로 국한 할만치 느러가므로 금년연말내로 삼억원돌파도 안전에 잇는때에 또새로운 무역계량보가 전하고잇다 인천부내에잇는 조선합재주식회사에서 제품으로 명성을떨치든 『베니야』판은 세계각국에 수출하게되엿다 그공장에서는 시국하에잇서서 국책에순응하기위하야 제삼국수출에대한 의사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여오던바 원목재(原木材)의 수입을따다 『링그』제에증시하야 그제일차로서 금월십칠일에 한성환(漢城丸)편으로 『런던』에 한동에 삼십오만피 든것을 일천불을 수출시키고 『골베이』에 삼십불수출을 시켯스며 내월중순에 도봄베이』에 일백오십불과 남아불리가에 실론등의수출이 확정되엿다 그리고 인도(印度)의 『카라취』에 칠백불수출의 예약을 보게되엿는데 이전서제품하는것이 제삼국수출에 실현을보게된것은 그공장의지전에 큰주목을 갈게되엿스며 그공장에서 원재(原材)의 구할수는까지를 『필립핀,보르네오』등지로부터 수입함에잇서서 금후는될수잇는대로 조선내의재료를이용하야수출품에 충당하려고 연구에 착수중인데 또내지에서 『베니야』판의 수출상황을보면 소화삼년에는 배어 입할으봇거라 구십여외국에 수만원정도이엇스나 동십이년에는 일천일백칠십이만원으로 격증하엿다 그수출지는 대부분이 영국연방을 지나 만주가지에 각국에유효한 『베니야』판이 인천항의 무역에 더욱빗나는 존재라한다

開城 金基永氏美擧

二千五百坪基地寄付

嶺北小學校의運動場으로

【開城】개풍군 령북공립심상소학교(嶺北公立尋常小學校)는 교사와 운동장이 협착하야 위치가 산꼭록에 파뭇처잇서 아동의 보건운동상 크게지장되는고로 학교당국은 군당국에 일즉부터 교사이전을 요구진정한바 잇섯스나 기지를 매수할만한비용이업서 뜻을 못니루고 잇든중 이소식을드른 부내유지 김기영(金基永)씨는 동교사의 이전기지로 이천오백평을 자진하야 기부하엿다는바 이소식을들은 학부형과 면민일동은 씨의 남다른 륙지에 죽찬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五百圓을寄付

金顯濟氏美擧

【長湍】장단군진서면 선적리(津西面仙跡里)출신으로 경영하는 선적학원(仙跡學院)은 고유재산이업서 경영상 비상히곤난하상태이든바 우연한 기회에 경성부옥천정 독지가 김현제(金顯濟)씨가 그곤난한사정을 듯고 즉시 경영유지비로 현금 오백원을 동학원대표송기학(宋基學)씨를차저 기부하얏다는데 김씨의 미거에대하야 면민은 물론 일반의 칭찬이자못놉다고한다

지프테리아 仁川도猖獗

【仁川】엄동이습래한이때에 인천부내에 전염병이 또발생ー 인천부도산정(桃山町)삼칠번지신현수(申賢秀)(◻)외 부천군소사면 기안리(富川郡素砂京按安里)에잇는 상원진(上原進)(◻)이가 지난 이십사일에 지푸테리아에 걸려 도립 인천의원에서 치료중이며 신현수역시 지푸테리아에 걸려 도립의원에 수용되여잇는데 일반은 청주위에 각종전염병이발생하므로 각자의주의가 필요하다한다

새町会새気焰巡聽記 ⑬

道林町西部町會

國旗揭揚塔을新設 家々에神壇奉置

貧困은하나希望만흔將來

도림정서부정회(道林町西部町會)는경성의남쪽끄친남경성역에서 다시남쪽으로 경인선을끼고 조금나려가다가 경성과 시흥군의경계선인 안양천(安養川)의 가즈런히 느러 대제방미트로 서잇는 부락이 곳이정회구역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되벌인』라는이름미테 경성과 제물포(濟物浦=仁川)간국도(國道)의 중요한주막으로 그발전의역사가 오래엿을뿐아니라 다시최근에와서영등포방면이 경성부로편입되는곳 수공업지대로서 비약적발전을하게됨에따라 갑자기도시로서 평창울하게되기는하얏스나 이른바 초계파천식으로 시흥군에서 일약경성부가되얏서도 도시도아닌요 그러타고 농촌도아닌 반농반봉의지대를 형성하고잇는것이 곳이정회의 특색이다 그러나이정회는강남(江南)아홉정회중 지역적으로 면적이 제일 망대할뿐아니라 대개지세가 평탄한우에 교통적으로는 경이간선 국도가 정회구역을 양분하야 판통하고잇는판계상 장래 공장지대로서 크게발전할히망이 제일 유려하다고 볼수잇슬것이다 현재동정회인구는 일천팔백명가량 호수로는사백 세대수로는 유백이라고하니 그것도 결코 적은 살림사리는아니다 정회구역내에잇는 유수한공장으로는 이천여명의 종업원을가지고 그자본과 규모의방대함으로 전국유수의대공장인 동양방적(東洋紡績)을위시하야 산소회사(酸素會社)구전(鶴田)고무등 대소회사가잇고 이외에 아직시국판계로 기공(起工)은아니하고 잇스나 이미부지(敷地)의 결정을 보고잇는 모모회사등이잇서서 공업지대영등포에잇서서도 만장의기염을 토하고잇다

◇—◇

총대이장하(李章夏)씨는 도림정이구시대부터 총대로서 정회사무처리에대한 우수한 스완과 판후한인격이 정내주민들의 신임을밧게되여 재차당선된분이다 『정회사무소로 씨를치저 장래정회행정에대한 포부를무른니 『정회라는것은 곳 정내주민자신의 이해를토대로한 기구인만큼 일반정민은 아무쪼록 자발적으로 정회사무진행에대하야 열성잇는협력과 기탄업는비판을 요망하는터이다 그래야 비로소 자치적 정신하에 성립된 정회행정에 대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수잇슬뿐아니라 이것은 또한국민으로서 누구나다가티 부담해야할 가장중요한 의무의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정회는 경성부로편입된지도 얼마아니되고 또 지역적으로 변비한곳에잇서서 아무것도 자랑할만

한것이 [illegible] 관념과 경신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야 우선 정회역원제씨에게는 오는정월부터 각호에신붕(神棚)을봉재하기로되여잇다 아모튼 정내주민전부에게이것을실시 하도록 노력해볼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히 정내에 국기게양탑을세워하야 비상시국에 대처한 황국신민으로서 각오를 일층긴밀히하는동시에 경제(慶祭)가잇슬때에는 국기게양의 모범을 보히기로되엿다』 운운

◇……◇

이정회제도로서 특이한것은정회사무소를 분류적으로 분담하지안코 지역적으로 여섯구(區)로 나누어서 각구에구장이잇는것이다 이것은 구시내와가티 정회구역이 밀집되여잇지안코 됨반사무를 진행하기로되여잇는것은 구역내에 이곳 저곳에 주민들이 헤여저잇는곳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일것이다 총대 이장하씨외에 부총대에 임성택(林聖澤)씨가잇고 일구장 이공천(李公天) 이구장 추광옥(秋光玉) 삼구장 권오영(權五榮)씨 사구장 장춘환(張春煥) 오구장 등전번일(藤田繁一)씨 육구장 신업(申業)등 제씨가잇다 이외에 고문이네명 평의원이스무명이 잇고 회계역에 김동재(金東載)서기에 김희구(金熙求)씨가잇다 (사진은 총대이장하씨)

養毛素 【金鶴ポマ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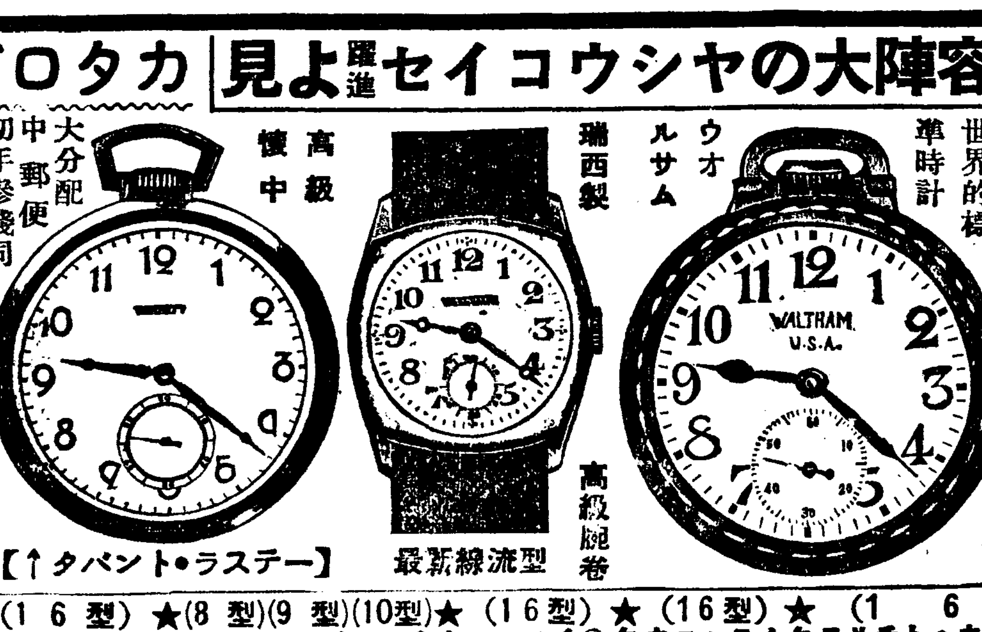
容陣の大 セイコウシヤの躍進よ見よ カタログ

景品 景品實物 縮寫ノ圖

大分配 中郵便 切手參錢同封하야申込次第直時送附합니다

二十圓以上品을註文하는분에게 躍進社發賣의 T・M萬年筆正價壹圓八十錢의商品을一本式無漏進呈함

注文方法…代引注文은內金으로써注文高二割以上送金하시를바랍니다。內金업는代引注文은一切發送지아니함。前金注文은送料不要。代引注文은送料四十七錢也注文主가負擔하실것送金은小爲替또는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セイコウシヤ營業所로拂込하시요



世界的標準時計

同業者整理品引受處分大特賣中

(冬季)特別原價提供大賣出

★クローム側ウオルサム懷中(米國製品・クサリメタル付)(16型)
イ 七石高級品特價 一一・[illegible]
ロ 七石入(〃二十八円) 一一・五〇
ハ 七石入(〃三十二円) 一二・七〇
ニ 七石入(〃三十九円) 一五・五〇
ホ 七石入(〃四十五円) 一九・八〇
ヘ 十一石入(〃五十二円) 二一・五〇
ト 十五石入(〃六十二円) 二五・八〇
チ 十五石入(〃六十八円) 三五・〇〇
リ 十五石入(〃七十五円) 四二・〇〇
ヌ 十五石入(〃八十二円) 五〇・〇〇

★クロム側懷中(クサリメタル付)(16型)
イ 七石入(高級円)特價 四・二〇
ロ 七石入(〃十一円) 四・六〇
ハ 七石入(〃十三円) 七・二〇
ニ 十五石入(〃二十三円) 八・四〇
ホ 十五石入(〃二十一円) 九・五〇

★クロム側高級懷中(タバンレーマン)(瑞西製品・クサリメタル付)(16型)
イ 七石入高級品特價 七・五〇
ロ 七石入(〃三十二円) 八・〇〇
ハ 七石入(〃三十六円) 九・五〇
ニ 十五石入(〃三十九円) 一二・五〇

★クロム側腕巻(舶來皮付)
(10型)
イ 寶石アンクル高級十三円 六・五〇
ロ 寶石〃(高級十七円)特價 七・〇〇
ハ 寶石〃(〃二十四円) 一一・〇〇
(9型)
イ 寶石〃(高級十九円)特價 七・五〇
ロ 寶石〃(〃二十五円) 八・五〇
ハ 寶石〃(〃二十九円) 一二・〇〇
(8型)
イ 寶石〃高級十八円特價 九・八〇
ロ 寶石〃(〃三十二円) 一一・二〇
ハ 寶石〃(〃三十八円) 一五・〇〇

★十八金代用懷中時計(16型)
イ 寶石アンクル正價十二円 五・五〇
ロ 寶石〃(高級十九円)特價 五・九〇
ハ 寶石〃(〃二十五円) 七・五〇
ニ 寶石〃(〃三十八円) 九・八〇
ホ 寶石〃(〃四十五円) 一三・八〇
ヘ 寶石〃(〃六十二円) 一六・〇〇

★十八金代用腕巻(舶來皮代)(8型)
イ 寶石アンクル正價九円 九・〇〇
ロ 寶石〃(高級十八円)特價 九・六〇
ハ 寶石〃(〃四十八円) 一三・〇〇

★正十八金側高級腕巻(8型)
イ 十五石入(高級七十八円) 二八・〇〇
ロ 十五石入(〃八十円) 三〇・〇〇
ハ 十五石入(〃九十円) 三五・〇〇

★正十八金側高級懷中(16型)
イ 寶石アンクル(高級百円) 五〇・〇〇
ロ 寶石〃(〃百十円) 七五・〇〇
ハ 寶石〃(〃二百円) 八八・〇〇

セイコウシヤ營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十六 振替口座東京一五七九四一番

民生部大臣認可

奉天工業學院生徒募集

本科 土木部(一ケ年) 一二〇名 電氣部(一ケ年) 六〇名 測量部(一ケ年) 六〇名

特別科 電氣部(一ケ年) 六〇名 測量部(六ケ月) 一二〇名

▲出願 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日迄 ▲考査 昭和十三年十二月一日 ▲資格 尋常小學卒業者

奉天市北陵大街(萬國球場前) 電話②四、七七八番一、四六六

(學則請求要二錢切手)

寄宿舍設備アリ

輕便洋服收納器と自動開閉洋服覆器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輕便洋服收納器 三個付掛 大特價一個 二圓九十錢(三個小包送料九十三錢 二個小包送料一圓五錢)

長 三尺六寸 (折疊寸法)長一尺一寸 巾一尺二寸

本品は室の何れへでも掛けられ中央より吊下の兩側になる體裁優美なカーテン張り洋服ダンス代用の流行品です三着分以上の洋服オーバ、ズボン、ワイシャツ、ネクタイ等一切掛付です。

自動開閉洋服覆器 三個付掛 大特價一個 四圓五十錢 一個の小包送料 特製別珍ブック五圓五十錢 代引九十三錢

寸法 カーテン横 一尺一寸 長四尺八寸三尺

本品は掛吊兩用自動開閉の出來る優美なるカーテン張の洋服ダンス代用品で洋服ズボンワイシャツ等三着分に適し體裁のよい室內裝飾品です

輕便ナカーテンタンス代用品

◎特約店大募集 カタログ無代進呈

伊藤利商店 名古屋市中區老松町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森永ミルク

모리나가밀크

한참發育할愛兒에게— 무엇보다榮養 무럭무럭자라게하는 힘에가득찬 조흔 밀크!

흠젼 榮養 ㅅ젯 銃後

森永煉乳株式會社

M-16

國產最高

ウテナクリーム (コールド) 우테나 콜드 크림

肌は生きてゐる!! 피부는 살어잇다

だから榮養が必要だ 그러므로 영양이 필요하다

치위가 더해지고 空氣가 乾燥해에따라서 皮分泌가 活潑하게되며 살內部에 榮養이 不足하야 잔脂의 주름살이 느러지며 살결이거처러지므로 榮養의補給을 게을리 할수업습니다

・ウテナコールド는強力한榮養크림으로 脂肪性의榮養이 살속에滲透하며 皮脂의分泌機能을 促進하며 新陳代謝를旺盛히하야 살결에潤澤을 주고 잔주름살이 느러지는것 거처러지는것을 解消하야 血色이조흔젊은 살결을創造합니다

・純脂肪性・

★入浴時의 美容法에! ★살결을 곱게! ★理想的인 濃化粧下!

就寢前은ウテナコールド를칠하야맛사ー지하는것이가장效果的입니다

正價・六十錢 一圓二十錢

13.11-3.E

本社廣告部 六三〇番 販賣部 本局六三八一番

薄命 (148)

韓龍雲 作 鄭玄雄 畫

결혼 四六

『그랫더니 이러일이 생겻수나 하지난 내욕심만 채기로 너하는 노릇을 말나고야 할수가 잇너냐 하지만 혼인을 할더래도 그사람을 더 지내보고 하는것이 조흘것이다』

숙자는 자기의사만 말하고 정작 순영이가 못은 요점은 대꾸하지 안는다 순영이는 숙자의말이 하편으로는 고마웁게도 생각되나 또하편으로는 숙자가 자기의 편의만을 위하야서 결혼을 방해하라는 의사가 아닌가 하고도 생각되얏다 그중에도 대철의 위인을 대단치안케 말하는데는 더욱 불쾌하얏다

『잘되고 못되고 하는것이야 제팔시대로 되겟지오 인력으로 면할수가 잇서요 혼인을 하게되면 아까 제가 하던말슴은 그러케 해주실수가 잇겟서요?』

순영이 기색은 괘괘하지도못하얏스나 애원하드시 국축하지도 안하얏다

『남은 기한을 돈으로 한다는 그말 말이냐?』

『예』

『그게야 네가 다른데로간다든지 여기잇기 시려서 나간다든지 그런일 가드면 될말이나 돈아니라 은을 준대도제 기한을 꼭채게 하겟지만 네가 시집을가게 되는바에야 내가 이해를 따저서 너를 못가게 하겟니? 그것은 조금도 염녀하지말고 너할차비나 하여타 하지만 암만해도 나는그사람과 혼인하는것이 그대지조흔줄 모루겟다』

숙자는 먹든담배대를 미러놋는다

『그럼 나가겟서요』

하고 나오랴는 순영이는 압흐로는 무엇을 엇은것 갓고뒤로는 무엇을 이저버린것가텃다

『애 순영아』

숙자는 마당에까지 나온 순영이를 다시 부르더니

『그레 남어지 기한을 돈으로 밧는다면 그것 낼돈은 잇니?』

하고 뭇는다

『잇지오』

순영이는 손쉽게 대답한다

『그럼 그것은 사내가 당하것지?』

『아니야요 제가 드리겟서오』

『네가 드려?』

『예』

『웨 네가드려 그사내는 그런것 무러줄돈도 업다더냐?』

『두루지오 제가 드리지오 아무가 드리면 어떤가요』

순영이는 차마 대철이가 그만돈도 무러줄것이 업다는 말을 못하얏다

『그럼 너 서금한 돈으로 무려준단 말이지』

『그것도 잇고 이번에 서울가서 가저온 돈도 잇지안허요?』

『응 그것하고, 하지만 네돈으로 그것을 무러주면 혼인한 뒤에는 먹고 살기는 걱정이 업는 모양이냐?』

『모루기는 모루지만 지금은그럴 형편도 못되나봐요』

『그럼 살기는 어떠케 사니?』

『어떠케 살것지오 설마 산입에 거미줄 쓰겟서요』

『암 살기야 살지 사람이 죽기야 하겟너냐만 당장에 먹을것이 업스면 그것도 어려우니라 너는 지내보지를 못햇스니까 사람 사는일을 속속드리는 모를이다만 목구녕에 풀칠해가기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다 웨그러케 아모것도 업는 사람에게로 갈라고 하는지 모루겟다 네가 은혜를 갑는다니까 [illegible]업다마는 후회할날이 잇스리란』

숙자는 조금 잇다가

『그러치만 네가 다 작정한 노릇을 말해야 쓸데잇겟니, 남은 기한은 돈이고 무엇이고 그만두어라 내가 너를 성취시켜서 다리고 살라고까지하얏는데 그러케는 못하게 될망정 네가 시집가게 되는데 내가 이해만 따저서 [illegible] 돈을 바들수가 잇겟니 하니까 돈은 한푼도 내생각을 말고 아모쪼록 시집가서 잘살도리나 해라』

숙자는 눈물을 흘린다 순영이도가티눈물을 흘리다가 나왓다

科學의힘으로색여진 映畫藝術의偉容

映畫祭는 오늘로絕頂

實演은더한層潑剌!

역사적인 영화제(映畫祭)는 드디어 작이십륙일 오전십시 장중하고도 의의심중한 개회식(開會式)과함께 본사사장방응모(方應謨)씨의 개문으로막은 열리엇다 전람회장내에진렬된 정연한 이천여점의 출품에는 가지가지의 아로색에친고심의 자최가역연하거니와또한 한편 이위대한과학예술(科學藝術)을 창조해내는가지가지의 거창한 기게가 침묵속에 정좌하야실로 인류문화의 새로운지배자(支配者)인양 태연함도 이전람회에서 비로소 느낄수 잇다이첫날을기대하야 몰려든영화팬은 제각기그리운 추억과 새로운 황홀로더부러 회장내에 단정히서서잇다 이리하야 첫날의 입장자는마침 토요일인관게로 오후부터는 남녀학교학생이 답지하야 일대호잡을일우다시피 장내는 초만원을이루엇다

○

다음으로 제이회장인 부민관대강당(府民館大講堂)에서는 영화에 일생을 바친 고나운규(故羅雲奎)씨의 이 대작품인『아리랑』과 오몽녀(五夢女)가 만원의 성황으로 끗낫다

더욱 조선서처음보는 영화인 총동원의 실연(實演)"막다른골목"은 그놀라운 장치(裝置)와 특별한조명으로서일반관중으로하여금감격과 흥분과도취속에잠기게하고야마럿다 이러케 성황으로끗낸후다음의제이일인 즉이십칠일에 잇어서는 방공훈련(防空訓練)도 오전 구시로 끗낫고 때마춤 느즌가을의 다양한 일요일인 지라 이날을 택하야 이영화제는 전람회는 물론이요 부민관(府民館)에서는 오후한시반과 밤의 여섯시반의 두번에 걸치여 명화감상(名畫鑑賞)과 겸하야 『막다른골목』의 실연(實演)이 잇기로 되엿다이날 상영될영화심청(沈淸)은 안석주(安碩柱)씨 처녀감독으로 김소영(金素英)양이 주연한 영화로서 이번추천투표에서 단연 제일위를 점령한 대표적명작일뿐아니라 이작품은 이번에 새로히 편집하야더한층작품을 완성시켯다 그리고『임자업는나루배』는 나운규(羅雲奎)씨와 문예봉(文藝峰)양파의 명콤비로서 실로 무성영화에잇서서는 단연 감격의면편이 아닐수업다 이작품의 감독은 갈독게의정예인 이규환(李圭煥)씨인것도 더한층주목할점이다

九官鳥

★…지난봄 연극콩클에 일등연기상(演技賞)을 탄 한은진(韓銀珍)양 그후 영화로진출한이호연극과 밤을 끄럿다 가 이번다시 『마!틴』의어머니로 명연기를 보여주엇다 어느팬이 한양의 연기를 보고는 연극엔 노파역이요 영화에는 미인역인가? 하고 감탄

★…말이 난김에 한가지더하거니와 노재신(盧載信)양은 연극은 그전홍행단에 다닌일은 잇서도 연극의명인인 것까지는 몰랏든데 이번『막다른골목』의『케이』역에서는 놀랄만치 는난한연기를 봐여주어 영화와 연극은 사촌격이라는게 정말이로군 이러케 시무룩히 긍동하는눈이잇다

★…이번 실연에 잇서서 영화인의 열성이란 놀라운데다가 모처럼 이러케 서로를 열심하니까 외부에서 정신적으로 또는 직접간접의 위로의 표시가 한둘이 아니엿다 입심조흔 어느영화인이 웃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가? 하고일장공소

(사진은이십칠일상영할"沈淸傳")

("님자업는나룻배")

막다른골목의舞台面

라디오 JODK

『社會見學』(二十七日 午後六、二五)
金鑛 ─全北金堤三菱鑛業所에서中繼─

금회수(金回收)산금(産金)─시국(時局)은 금을절대로 요구하고잇서 얼마가잇드래도 부족을늣기고 잇는것이 지금의형편입니다 조선은 다행히도 풍부한산금지대로 도처에 금산이요 금광입니다 그동안여러번 견학(見學)을 해온 우리는 오늘은 『마이크』를 끌고나가서 풍성풍성한 금광풍경을 보기로하겟습니다 이한곳에서 조선산금의 전모(全貌)를 볼수는 업겟스나 그칙면(側面)만이라도 엿볼수잇다며는 다행한일이겟습니다 특히오늘밤 소개해드릴것은 『꿀트렛자ー』입니다 이고묘한 채광기(採鑛機)는 전선에 불과十七대밧게 업다합니다 이『트렛자ー』의움지기는 소리야말로 산금조선(産金朝鮮)의 행진곡(行進曲)이라고도 할수잇슬것입니다

管絃樂 (二十七日 午後八時)
마라손競走 一九三六 ─헤르벤트빈트作曲─

이관현악은 一九三六년 백림(伯林)『올림픽』당시의 감격(感激)을 다시한번 우리로하야금 늣기게할려입니다 이관현악의제목에는 또한아작곡가 자신이부친 부제(副題)가잇스니─승리자손기정(勝利者孫基禎)에게바친 꼭꼭─이라고하얏습니다 곳이 지상에도 루차보도된『마라손』왕(王)『손』의 승리의감격을 음악에부처 보내여준것이 이관현악입니다 오날밤 들여드릴 이감격의『레코ー드』는 작곡자 자신이 그곳의 악수들을동하야 연주 취입(吹込)하야보내준『레코ー드』입니다

二十七日(日)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午後零時五分(東) 合唱 橫濱오라트리오協會 指揮 四戶沆雅
◇同一時 俗曲 一、[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四、夢金浦
◇同一時三〇分 京城立唱 一、놀양 二、앞山打鈴 三、뒤山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도라지打鈴 李命吉 李命山 卓福萬
◇同二時 럭비ー試合實況(國語) 全國中等學校럭비ー大會朝鮮豫選決勝戰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劇 "천둔과쥘매" 白羊會
作과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社會見學─全北金堤三菱鑛業所로부터中繼─
◇同七時三〇分 南道歌謠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曹弄仙 曺素玉
◇同八時 管絃樂(레코ー드)『마라손競走一九三六』(勝利者孫基禎에게바친曲目) 헤르베르트作曲
◇同八時二五分 京畿歌謠 一、十杖歌 二、제비歌 三、달거리 四、妓生打鈴 張紅 金光泰
◇同八時五五分 連續探偵野談『非桃非杏』(一) 申鼎言
◇同一〇時一〇分 레코ー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合唱
◇同六時五分(東) 童話劇
◇同六時二五分(札) 講演
◇同六時三〇分(東) 雅樂
◇同七時(大) 童話
◇同七時三〇分(東) 리보ー트
◇同八時(大) 組曲
◇同八時五〇分(東) 尺八
◇同九時(東) 드라마

二十八日(月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굴·숭』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〇分 輕音樂(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保育事業이야기』 鎌倉保育園 李承愛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童話『장작이된곰』 高在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西洋倫理의根底』 佛敎專門 金斗憲
◇同八時 (東) 吹奏樂喇叭號樂 昭和十三年音樂週間曾選入選團體 第一部 一、東京石川島造船所自彊吹奏樂團 民謠曲集中 월리암作品 가、前奏曲 나、行進曲 二、東京府第一商業學校스쿨밴드 頌歌『旅舍讚揚』블노ー드作曲 喇叭號樂 第二部 一、神戶喇叭號樂修習團 御大禮行進曲 二、東京專修商業喇叭號隊 幻想曲『벗나는밤』
◇同八時三〇分 歌樂 萬年長歡之曲中 一、羽調初數大葉(男唱) 二、羽調二數大葉(女唱) 三、編樂(男唱) 四、編(女唱) 五、太平歌(男女倂唱) 李王職雅樂部員 男唱 李炳星 女唱 朴昌均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同九時 連續偵探野談『非桃非杏』(二)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三五)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 新日本音樂
◇同六時(東) 漫談劇
◇同六時二五分(名) 講演
◇同六時三〇分(大) 歌謠
◇同六時四〇分(城) 防空講評
◇同八時(東) 吹奏樂과喇叭
◇同八時三〇分(東) 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東) 俚謠
◇同八時五〇分(東) 드라마

◇同六時 라디오遊戲『우리유치원』 城北幼稚園園兒 指導 崔徽涉 伴奏 朴順喜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作品과現實』 延專 鄭寅燮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崔濟愚의思想』 鄭佰朝
◇同八時 歌謠曲 一、알뜰한當身(金) 二、짝사랑(李) 三、人生의봄(鄭) 四、산호빗하소연(金) 五、눈물의沙漠길(李) 六、사랑도病이러나(鄭) 七、禁斷의꽃(金) 八、눈물저진豆滿江(李) 九、어쩌면조와요(鄭) 金溫順 李泰鼎 鄭美理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八時三五分 라디오드라마『달밝은밤洞里風景』(松永敏原作 南壽民編案) 配役 어머니 南宮仙 아버지 宋在春 王順 池京順 區長 尹星畝 解說 卜恩淑 演出 全永一 效果 崔一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同九時一〇分 (滿洲로부터) 哈爾濱우크라이나合唱團 우크라이나民謠 가、어머니가되야서 나、戰場에 다、故鄕에 指揮 바젤리안·루크샤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解說 古賀英夫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ー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 뉴ー스 氣象通報 翌日順序 明日曆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一八) 李完應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절로
◇同六時 (東)支那話
◇同六時二五分 (東)文化講座
◇同七時三〇分 (大)歌謠
◇同七時四〇分 (北京)
◇同八時 (大)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 (東)靑年時間
◇同九時一〇分 (滿洲)

十一月廿九日(火)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빠이올린과管絃樂(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國策과家庭生活』 京師 張和順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次週映畫

明治座 ─이십팔일부터『도로지아ー스너』여사감독작품으로『존·크로포ー드』『로버ー트·영』『프란초ー든』이 주연하는『신부는홍의상(紅衣裳)』을 공연한다

若草劇場 ─이십육일부터『에노겐』의대륙돌진(大陸突進)』독일우파의『백은(白銀)의 꼬풍운』와 오여홍(吾亦紅)』의 제이주속영을한다

黃金座 ─이십오일부터『그늘의꽃』과『심청』(宋達錢)』안옥경(安玉鏡)의 애르매(이삼부) 시상영

이달은 부인병이 몹시 중하게되는 때 입니다

東京田谷病院長 醫學博士 田谷誠

요새에 대하증(냉증)이 흘르거나 또는 월경이 고르지못하든가 월경때면 몸지알튼가아래배가몹시쑤시고 아프고땡기며 허리가 끈어지는것가티 결리고아프면서 속옷을 적실만치 대하물이흘을때든가 이와가튼증세가 부인병때문에 생긴 증세인줄을모르고 그병원근을 치료치안는때에 부인병을 만성고질로 들어가서 비참한생활을 보내시는분이 좀만흐십니까 자궁병측부인병균이 자궁속에들어가서 진물르게하고 흠집을만들어 붓고아픔을 알게하여주는 것이므로 그곳에 병균 즉자궁속에잇는 병균을모조리죽여야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약종류를 먹어서곳치라든가 또는의사가권하지안는 거문빗나는 넛는 약을써서 오히려 병세를 더욱중하게 만들어가지고 비로소 병원에차저오니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내병원에 진찰을바드러온 중하게된부인병환자들이 백발백중으로 단시일에 근치되어 감사의말삼을 마지안함은 의사로서의 기술보다도 완전한치료효과를 가진부인병 근치약『와세돈球』힘에잇다고 밋는다

더구나 매일 병원으로오는 사경이잇는 환자께 자택에서 사용케하엿더니 역시 림상치료와 똑가튼 치료효과를 어덧스니 專門醫師諸氏께서는 물론이요 일반자택치료 환자께서는 꼭『와세돈球』를써서 단시일에 근치시켜버리시요

저는이러케 부인병이근치되엇습니다

탕약으로속은울분을 『와세돈球』로 분푸리

(路下) 李順伊

선생님들의 恩德을 多謝하야 冷症이全治되고 受胎까지 하엿스니인참말고맙습니다 이제病院에서 진찰을밧고서 뭇뵈엿는입신이라는것을알고나니 무엇이라고 다치하의말슴을 들엿스면조흘는지모르겟습니다 그것은 너무나오래동안 약에속아오기때문에 이번에도 또헛일이겟지하든 생각이 豫想外에수태의깃븜을당키때문입니다 지금까지近一年동안이나 부인병약이라고 떠드는탕약(여기동서파는사물탕이라는것) 장복해왓스나 조금도효험이업서서 대하물은 전보다더욱심히 나오고 동통을수는겻이와세돈球卅六日分으로 씻슨듯이개이고 그후게속하야 사용해왓드니 수태라는경사를보게되엇습니다 다른약으로속아온분푸리를와세돈球로하십입니다 그후도 안전을도모하야 계속사용하얏이오니 곳卅六日分한세를 보내주시기를바라며 祈하야 그에對한注意事項을 一致하여주심을 切望합니다

病治와受胎의 二重의깃붐을엇고서

(高城) 洪順女

…너무도오래동안을두고 이약저약에 속아와서 疑心하면서도 試 와세돈球를 써보앗는것이(中略)이와가튼 경사를 엇게되엇스니무엇이라고 先生께 고마운지 다……下送하여주신藥으로 대하의말삼을해야할는지모르겟습니다 즉낫지안엇는가보다하고 의사의 진찰을바다보앗더니 醫師의말이 受胎의경사라고하니 이런깃붐이 또어데잇겟슴니까? 그러지안어도 今年六歲먹은女兒를난후로 수태를못하야 고대하든중이라 외집이 모다 깃붐에넘처서어쩔줄을 몰으는바이오니 이다 貴藥의은덕이…

와세돈球를사용하고잇는病院一部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病院 救世軍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大阪醫大附屬病院 岩手醫專附屬病院 長崎醫大附屬病院

가정에서 손쉽게 근치되는 와세돈球는 깨끗한 미타민으로 약한개를 국부에넛코 주무시면되나니 조금도 이상한감이업시 곳곳아서 약기운은 병화근에 작용하고 몸전신에퍼저서 근치됩니다 ▲약가는＝十二日分＝一圓二十錢、二十四日分＝二圓二十錢、三十六日分＝二圓四十錢(病院用徳用分) 百四十四球＝十二圓이오며 동지하시는대로 조선문으로된『부인병자택치료서』를드리며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